



지역사회 중심 의료돌봄복지 협력 구축
전북도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도내 시군을 비롯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주대자병원, 전주병원, 전주고려병원, 동군산병원, 정읍한국병원, 고창병원 등 12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칼 댄다'

정부 재조사 지시에 전면 정비 14개 시군 882건 불법시설 확인 하천·계곡 전수조사 범위 확대 불응 시 고발·강제철거 병행

전북도가 도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뿌리내린 불법 점용시설 근절에 나선다.
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시군 담당 국장과 도 관계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시군별 불법시설 현황과 정비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전국 조사 건수 835건은 턱없이 부족하며 누락 시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와 고의 누락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조사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찰·징계·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 2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일부터 전수 재조사(1차)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기준 14개 시군에서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으며 불법 경작(28%), 평상 등 편의시설(26%), 기타 물건 적치(2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검증 조사도 별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국가·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산림 내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도랑)까지 아우르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하천 구역 외 주변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1

차 조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으로,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처리 절차도 엄격해졌다. 불법 행위 적발 즉시 구두 경고 없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를 거쳐 22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되 불응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이행한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도 강력 추진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특별 관리에 나선다.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국면으로 전환해 시군과 협의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통한 국민 신고 활성화도 병행한다. 현수막 게시, 언론 보도, 방송 홍보, 이·통장 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캠페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의 하천과 계곡은 소수 업주의 사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단 한 건의 누락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을 불법 점용을 완전히 근절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9부 능선' 돌파...본회의 남았다

32개 특례 반영 '입법 막바지' 미래산업·의료·교통 개선 농생명·청년농 지원 기반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입법화에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 당초 중앙부처 협의를 마친 21개 과제에 더해 법안 심사 대응 과정에서 11개 특례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

분야별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신설로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협력사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생산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의료·교통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변화가 기대된다. 의료 분야는 의료인이 도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바탕으로 버스 노선 지원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등이 추가돼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을 한층 다졌다.

도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3차 개정안 입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수준의 특례 보완과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협약 등 대규모 투자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2024년부터 한병도·조배숙·이원택·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춘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한 것으로, 타 특별법과의 동시 처리 문제 등으로 세 차례 보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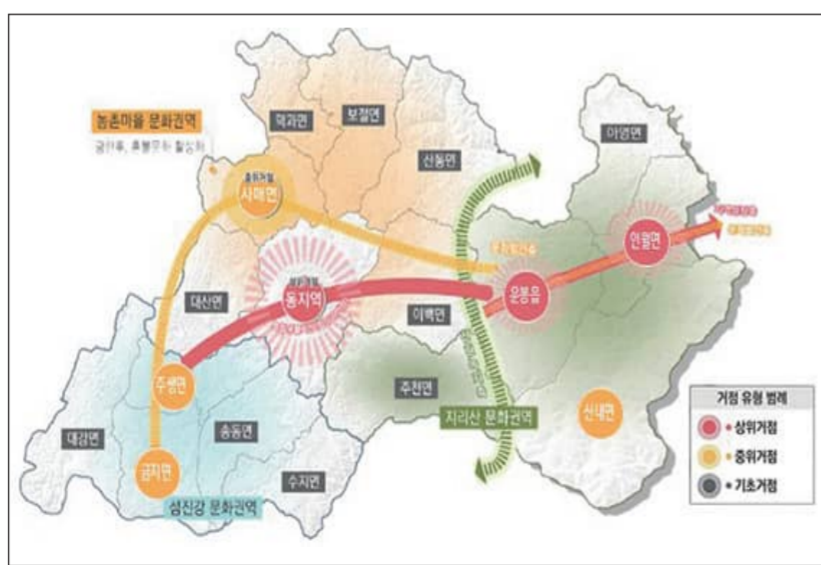
교착상태 돌파를 위해 도는 강원·제주·세종 등 타 특별자치시도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입법 필요성을 적극 공론화했다.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해 법안 통과와 필요성을 설명했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조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법안소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정적 대응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남은 법사위·본회의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남원시, 농촌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박차'

수지·주생·대산·덕과 '본격화' 국비 112억 포함 총 220억 투입 복합거점센터·문화 복지 집약

남원시가 대규모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생활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초생활거점조사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면 소재지에 문화·복지·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농촌 주민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앞서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토대로 지난 2024년 체결된 '농촌협약'을 통해 수지·주생·대산·덕과 면 등 4개 지구에 국비 112억 원을 포함 총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여기에 시비 60억 원을 추가로 투입, 총 2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각 지구에 행정 복합 거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될 복합 거점센터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기존의 노후 행정청사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목적 강당, 주민 소통 공간, 소규모 프로



<사진=남원시>

그램실, 빨래방, 체력 단련실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한곳에 집약하면 단위 생활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사업을 병행해, 해당 시설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4개 지구는 지난해 10월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사업의 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촌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기반 시설과 연계해 배후 마을까지 서비스 혜택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도 무역사절단, 베트남 시장 공략 나서

도 농수산물품 무역사절단 파견 도내 기업 10개사 참여 호치민서 바이어 상담 진행 수출 7억 달러 목표 추진

전북도는 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도내 농수산물품 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전북 농수산물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치민은 동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 거점으로 최근 K-푸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식품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KOTRA와 연계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해외무역관 시장 운영하고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여, 홍삼, 병동만두, 김, 장어가공품, 두유, 말차, 곤약젤리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농수산물품을 현지 바이어에게 선보이며 1대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상담회에 앞서 참가 기업 제품 특성과 현지 수요를 분석하고 기업정보와 제품자료를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해 상담 기반을 마련했다. 상담 이후에도 바이어와의 후속 협의를 지원해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6억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베트남은 전북 농수산물품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략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유망시장 중심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확대해 2026년 농수산물품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축산물 유통 관리·지원 법안 발의

거래가격 공개 '깜깜이' 방지 유통진흥원 개편 기능 통합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격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수단이 부족하다"며 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 유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기

적인 실태조사 및 수급 관측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

산물 유통과 가격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 확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종합적 실행 기구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

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진행

행안부·도·시군 협력체계 강화 공무원 100명 참여 대응 전략 교육 현장지휘·매뉴얼 활용 훈련

전북도는 18일 전주 대성동 소재 왕의지밀과 완주 상관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에서 도내 도·시군 재난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사회재난 대응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행정안전부-전북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사회재난 유형별 대응 절차와 현장지휘, 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방안, 실전 중심 대응훈련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교육 마지막 과정으로 진행된 재

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현장 투어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자원 요청·지원 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지원관리 전 과정을 체험하며 현장 대응 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지난해 7월 지속적인 안전교육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교육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연간 안전교육 로드맵을 체계화하고, 시군 맞춤형 훈련과 후속 세미나 확대에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에 함께 참여한 김현수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관은 "전북도가 사회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실무 중심



<사진=전북자치도>

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돼 전북이 안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

전실장은 "도민의 안전은 재난 대응 공무원의 역량과 직결된다"며 "실전 중심 교육을 통해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지능형 농업로봇 지원 확대 법안' 발의

"AI 농기계 보급으로 인력난 해소" 구입·설치 비용 국가 지원 근거 연구개발·전문인력 보급 촉진



이원택 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장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집약적 영농 방식만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휴머노이드 등 기술이 결합한 지능형 농업로봇이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장비 연구개발 및 구입·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농업로봇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장비의 구입과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한 지능형 농업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농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농업의 핵심 인프라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지능형 농업기계 보급을 적극 지원해 농업 현장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AI 기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 AI 농업기술의 개발·실증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새만금 수질 보호 가축분뇨시설 합동 점검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수질 보호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7개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처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민원 다발 시설, 최근 수질오염 이력이 있는 업체, 무허가 축사 등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구제역 예방접종이 완료된 소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

시군·도내 12개 병원 참여 '맞손' 방문진료·재가 맞춤 서비스 제공

전북도가 병원 치료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도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도내 의료기관과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전북도와 도내 시군을 비롯해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주대자이병원, 전주병원, 전주고려병원, 동군산병원, 정읍한국병원, 고창병원 등 12개 병원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을 앞둔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지자체에 연계하게 된다.

지자체는 연계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재가 돌봄, 생활지원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병원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강화, 안정적인 체계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퇴원환자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호남의 금강산

운행시간
평일 / 주말 09:00~18: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55
www.daedunsancablecar.com

☎ 063)263-6622

전북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총력'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도내 16개 경찰관서 운영 24시간 단속활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26년 6년 3일 수요일
입기: 4년(2026년 7월 1일~2030년 6월 30일)
사전투표일: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5월 30일 토요일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대비한 전북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이 시작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06.03.)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경찰청 김철문 청장은 공명선거 위한 빈틈없는 선거범죄 예방에 돌입했다. 관련해 경찰청은 수사상황실 운영을 본격화하며 24시간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 및 첩보 수집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는 수사전담반 134명 경찰이 투입된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후측선전 △공표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등원 △

선거폭력 등을 선정했다. 경찰은 이에 △불법행위 실행자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추적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 단속한다.
한편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 및 신분 노출이 철저히 보호되며(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원 보상금 지급(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이 검토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국승철 완산구청장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만든다"

약 53억원 예산을 투입 노후 도로·인도 26개소 재포장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전주시 완산구의 안전한 도로 통행 및

보행환경 제공 위한 노후화 도로 및 인도 정비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완산구는 이달부터 약 53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백제대로 등 12개 노선의 도로와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구는 앞으로 생활밀착형 도로관리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물고기마을 테마파크 조성 추진

시-㈜에프지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관광·여가시설 관광 콘텐츠 개발

전주시가 '생명체 공유 문화관광(물고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의 업무협약 핵심에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따른 '물고기마을 테마파크' 조성 및 휴식 공간 제공이다. 시의 업무협약은 18일 윤동욱 전주 부

시장, 류병덕 ㈜에프지 대표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에프지는 시설 조성 이후 운영 인력 채용 시 전주시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김영태 기자

제4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최명권이 국천시영 등 5명 시의원 시정 현안분석정책대안 제시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형 간병보험' 상품 개발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간병비는 하루 평균 10~15만원 수준이며, 가족 돌봄 비율이 80%를 넘는 상황인 만큼 간병비는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복지 과제"라며 "기존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병원 간병비 영역을 보충하는 지자체 차원의 새로운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권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은 정부의 '5급3특' 균형발전 전략에 맞춘 전주의 거점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북이 '3특' 권역으로 지정된 것은 기회"라며, "전주 중심의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전주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의 형평성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에코시티 부지 매각 대금을 지역 현안이 아닌 후백제 조성 토지 등 매입사업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각 대금을 송천동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향후 매각 시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동)은 노후화 방치된 지하보도의 공간 탈바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용률이 낮은 지하보도가 우범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스마트팜

이나 문화전시 공간으로 전환한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특히 평화동 지하보도 등은 대피시설 지정해 해체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내실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단순 판매형 행사를 넘어 진정한 산업박람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조정원산업 기업 간 네트워크 기능 강화 조정원산업 전문 프로그램 확대 △참여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산업성 및 창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정소민 기자

김호은 청장 초미세먼지 감축 이행실태 점검

군산 소재 OCI SE(주) 현장 점검

18일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전북 군산 소재 OCI SE(주)를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12~2026.3)' 기간 중 봄철 초미세먼지 반발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관내 대기오염물질 대배출사업장 대상으로 마련됐다. OCI SE(주)는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전력 및 스티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303MW의 발전 설비 가동 시 연간 약 412톤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을 배출('25년 기준)한다. 이에 2019년부터 기후부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약품 투입량



을 증가시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김호은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3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대기질 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조선 3대 약령시 현대형 문화콘텐츠' 발전 간담회

6개 기관 약령시 기반 전주형 약선음식 방향성 모색

전주시 조선 3대 약령시(藥令市)에 대한 현대식 문화콘텐츠 발전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8일 시는 '전주형 약선음식 특화사업' 추진 위한 민·관·연 협력 관계

기관 간담회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전주형 약선음식 정체성 확립 △지역 농산물 연계한 특화사업 실행 방안 추진 등이다. 이 자리에는 전주시 농식품산업과,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재)농생명

소제연구원, (재)전주시정연구원, 지역농식품기업, 민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제시 의견을 살펴보면 △전주형 약선음식 개념과 적용 범위 △지역 농산물 연계한 콘텐츠 활용 가능성 △교육·체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

향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다. 참석자들은 제철 농산물을 전통 식문화 기반 '생활형 건강식 콘텐츠' 접근에 입을 모았다. 또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지사협 현장중심 복지전문성 강화

18일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 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현장 중심 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소통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8일 완주군 안덕간강힐링 체험마을에서 대표·실무·동 위원장 연합회 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를 주제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지역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연 속 힐링을 통해 현장 활동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위원들은 '지사협이 뭉쳤다! 신바람 퀴즈 & 현장 공감 인터뷰' 시간도 갖기도 했다. 특히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우리 동네 복지 토크(Talk Talk)' 코너에서



는 각 동의 우수 복지 사례를 생생하게 공유하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며 전주형 복지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표·실무·동 협의체로 이어지는 전주형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체가 지역 복지 현안을 해결하는 중추적인 소통 창구이자 정책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 중독예방사업 전개

전주시가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 위한 청소년 대상 중독예방사업을 전개한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8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2026년 중독예방 모범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4대 중



독(음주, 마약, 도박, 인터넷) 고위험 학생을 조기 발견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 한 해 동안 전주생명과학고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설 전시 및 캠페인 △맞춤형 중독예방교육 △조기선별검사 △참여형 특별활동 등 다각적인 중독예방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5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전북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12%에 달하며(전국 9.7%), 특히 전북 지역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률은 35.4%로 전국 평균(30.7%)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기업 '긴급처방 프로그램' 모집

중소기업 위기대응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화...상시 신청

(재)전북테크노파크(이규택 원장)는 상반기 Stand-Up 맞춤형 지원(긴급처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중기부와 전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핵

심인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경기지표(사업장, 종사자, 총급여, 매출액 등)를 상시모니터링하고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밀집지역의 기업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정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Stand-up 맞춤형 지원은 신청기업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해 '기술지원(Tech-UP)', '사업화지원(Biz-UP)'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기술지원' 분야는 기술정보 분석 지원 및 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적권 및 인증 지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까지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원규모는 1억원(반기별 5천만원 내외)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필요에 따라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Stand-up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은 지난 1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도 과학기술 종합정보 시스템 사이트(https://md.jbtp.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밀집지역정보 시스템(bizremas.or.kr)의 '일rip소식'>지원사업공고' 또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jbtp.or.kr) '지원사업'>사업공고' 장을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영농철 농기계 무상 수리 봉사

오일·소모품교체 엔진점검 등 지역민 감사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과 농협경제지주 자제사업부 과건 전문 정비 인력의 농기계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무상 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는 영농철 영농 작업 핵심 장비인 트랙터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엔진 상태 점검, 오일류 교체, 기타 소모품 교체 등을 진행했다.

북전주농협 농기계 무상 수리 봉사는 실질적인 작업 성능 개선 정비로 지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고장이 잦은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등 소형 농기계에 대

한 점검 및 수리에도 집중하며 장비관리에 임했다. 이 날 현장에는 농협 직원들과 농협경제지주 자제사업부 과건 전문 정비 인력이 함께 참여해 신속한 점검과 수리로 진행했다. 더불어 고장 예방 관리 요령과 안전 교육도 병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작은 불편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상 수리 봉사 실시 외에도 북전주농협에서는 농번기 전 매년 3월 소형농기계 무상수리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업무협약 체결

4월 시범사업 시행 앞두고 관계기관 협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과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

이번 협약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서비스를 신청하기만 기다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을 신속하게 찾아 나서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도 안내, 교육 및 시

범사업 홍보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을 협력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도 연계하기로 해 치매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정태규 연금이사는 "최근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학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나서야 할 때"며 "공단의 치매안심 공공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사전에 본인이 결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국가전략기술 100개 직접 지원"

과제당 1억원 규모 유망 공공기술 사업화

중기부는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2차 시행계획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고는 올해 1월 발표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연구개발, R&D) 1차 시행계획' 후속 공고로 당시 별도 공고를 예고한 'TRL점프업(1단계)' 트랙이다.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은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해 공급-수요 간 기술성숙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사업화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이번에 공고되는 'TRL점프업(1단계)'은 전략기술분야의 실험실 단계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를 향상해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고난도 유망 공공기술을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려는 기업이며, 지정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상반기(2차)에는 총 100억원, 100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1억원 규모로 지원해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망 공공기술이 기업의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되고, 공공기술 이전 이후 필요한 초기 검증과 개발 방향 설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고부가가치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등 12개 국가전략기술분야에 해당하는 138개 지정과제(RFP)를 발표했다. TRL점프업은 단계형 지원체제로



<사진=중기부>

운영되며, 올해는 1단계(PoC·PoM)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해 2027년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R&D)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TRL점프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세부 공고 내용과 신청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새출발기금 연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채무상환과 경영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연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업은 경진원이 수행한다.

전북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2월 제3차 협약 체결도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 준비를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이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과 재기 단계에 맞춘 맞춤형 회복지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출발기금 연계사업이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 추진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 차원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https://jbsos.or.kr) 및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조달청 '전북서 미래 성장 산업 발굴' 앞장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8일 최근 대규모 민간투자계획으로 미래 신산업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북지역을 방문

해 지역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장이 △지역 조달 기업 애로사항-제도 개선 사항 청취 △지방청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내부 개선 과제 발굴 및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역 기업간담회에는 산업용 로봇, AI 플랫폼, 재활용 자동화수거, 스마트 농업장비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전북지역 대표 혁신기업 7개사가 참석해 조달 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대규모 민간 투자 지원 중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마중물을 요청하며 △AI·로봇 분야 혁신조달 확대 △혁신제품 수요

관 매칭 확대 △농업 분야 혁신제품 해외 진출(G-PASS) 원스톱 지원 등 현장 체감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 청장은 "2026년도 조달청 주요업무 계획"에서 천명한 '역동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공공조달' 기조를 강조하며 "현대차그룹의 새금금 투자와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지역 내 AI, 수소 에너지, 첨단 로봇 관련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백승보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역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함께 "직원들 개개인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인삼 신품종·신기술 보급 확대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총부 음성)에서 인삼 관계 기관, 생산자 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인삼 '천랑', '고원', '진원' 등 6개 품종과 신기술 개발·보급 계획을 소개하고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품종의 안정적인 증식과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별 인삼 종자보

급센터 구축과 확대 방안, 이어짓기 장해(연장장해) 경감 기술과 이종구조 하우스를 활용한 안정 생산 기술 등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 농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삼 재배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경감하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농촌 지원 활성 장업 지원 위한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했다.

최근 농촌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관광·유희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농촌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창업은 농촌 소득원 다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창업 네트워크'는 크게 4개 권역(강원·충북, 경기·충남, 호남·제주, 영남)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대표단을 선출해 자체 협업 프로젝트 기획, 지역 간 연계 모델 발굴 등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권역별 간담회 및 대표단 워크숍 등을 통해 농촌 창업가 주도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협업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말까지 네트워크에 참



<사진=농식품부>

여하는 농촌 창업가를 약 5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창업 정보 지원 연결 플랫폼 구축 △단계별 맞춤 지원체계 구축 △돌봄 공백, 민첩 증가 등 농촌사회의 문제를 창업과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전북도 감사위원회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18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지역 전문건설업계 현황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개방의 폐해로 인한 전문건설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어 도내 발주관서에서 공사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 해당 전문공사로 의 우선 발주 권고를 건의했다.

임근홍 회장은 "도민과 더불어 옳은 길을 간다는 '여민유지'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살펴며 청렴한 전북도정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건설공사 발주관련 일상감사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명확히 반영해 해당 전문공사로 의 우선 발주를 권고할 것을 발주부서에 시달해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직접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의 풍부한 시공경험과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며, 전문건설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되는만큼 "건설산업 상호시장 허용으로 극심한 수주불균

형에 놓인 지역 전문건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공사구간 분할 및 공사내용에 따른 전문공종 분리 발주를 적극 살피달라"며 전문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전북도 감사위원회의 박희천 사무국장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 보호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공사발주 현황 등을 세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청렴 1등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목표로 도정 성과를 견인하는 공정·투명한 자치감사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등이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규정 해석이 어려운 사무 등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사전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건설팀 감사제도도 신설하고, 전문건설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3대 혁신 전략' 발표

취임 3주년 피지컬 AI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미래 청사진 제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18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1조 원대 재정 확보와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평가와 유학생 기숙사 문제 등 학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양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총 1조190억 원의 재정지원사업 및 외부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핵심 운영 방향인 '피지컬 AI', '서울대 10개 만들기', '글로벌 허브' 등 3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485억 원을 투입, 전북을 국가 AI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비전 발표와 함께 학내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평원) 평가에서 의대가 '불인증 유예(조건부 불인증)'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양 총장은 "학생 수 증원에 따른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데이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재심 신청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한 인프라 우려에는 "내달 해부학교실 15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다"며 "실습 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전 학습을 진행하는 등 의대 교육 선진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벌집 기숙사'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대학이 외국인 기숙사 우선 선별하기로 하면서 내국인 재학생들이 반발했기에 호실당 수용 인원(유학생 4인, 내국인 3인)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수용 인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 총장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소통 부족을 일부 인정하면서 "생활관 배정 위원회에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연합회 임원이 고정 멤버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18일 열린 양오봉 전북대 총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사진=전북대학교>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 총장은 "취임 3년차가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화학공학과 물리화학 등 다수 분야가 세계 100위권에 진입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북대를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대학으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 학마을계획추진단 회의 개최

수국마을 조성사업 제안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동장 정해윤)학마을계획추진단(단장 박영진)은 지난 16일 서서학동자치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학마을계획추진단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및 마을의제 발표회의를 개최했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이날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은 마을가꾸기 등을 열심히 했다"며 "특히 덕진 동물원에서 배롱나무 42주를 마을에 이식하고 모두 살 수 있도록 관리한 모범사례다"고 말했다. 또 2026년도 사업에도 서서학동

마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약속했다.

정해윤 동장은 "학마을계획추진단이 마을에 꽃을 심으며 관리를 하는 봉사정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마을에 계신 작곡이 퇴색됐으니 학마을계획추진단에서 계신 시 등의 교체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신영기 단원은 "마을의 굿은 일은 학마을계획추진단에서 앞장 서서 하겠다"며 수국마을 조성사업을 마을의제로 제안, 참석한 학마을계획추진단의 박수로 결의한 뒤 2026년 학마을계획추진단 회의를 마쳤다. /장정철 기자

전북 농어촌유학, 4년 새 12배 급증

특색 프로그램

지자체 주거 지원 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농어촌유학 사업 참여 학생이 시행 4년 만에 1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새 학기를 맞아 도내 13개 시·군 44개 초등학교에서 총 333명의 학생이 농어촌유학을 시작했다.

다교 18일 밝혔다.

전북 농어촌유학생은 사업 첫해인 2022년 2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333명으로 12.3배 증가했다. 전체 유학생 중 130명은 올해 새롭게 유학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203명은 기존 유학 기간을 연장한 학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19명, 서울 104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 18명, 전남 17명, 대전 13

명, 울산·충남 각 11명, 부산 8명 순이다.

유학생을 수용하는 학교 역시 2022년 6곳(4개 군)에서 올해 전주를 제외한 44곳(13개 시·군)으로 7.3배 확대됐다.

이 같은 성과는 학교별 맞춤형 특색 프로그램과 지자체의 정주 여건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진안 조림초는 아토피 맞춤형 지원과 숲 체험을 진행하고, 순창 적성초는 1인 1악기 연주 및 영화캠핑을 운영한다.

임실 삼계초(독서·매일 체육), 정읍 이평초(탄소중립·AI 교육), 익산 용포초(골프·계절별 수학 체험) 등도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임경진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순한 전학을 넘어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대안"이라며 "학생에게는 자연 속 교육의 장이 되고, 지역 사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전주대, 미식 콘텐츠 활성화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18일 전주대학교와 '전북 특화 미식콘텐츠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 미식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단과 전주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북 미식 콘텐츠의 교육·관광·문화 분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 미식 콘텐츠 기반 실습·체험형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전북 미식·관광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연계 사업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기획 협력 △미식·관광 분야

전문 인력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 △전북 미식 콘텐츠의 교육·관광·문화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공동 기획 및 자문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재외한국문화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미식 콘텐츠의 해외 확산에 나선다.

오는 5월에는 주이집트한국문화원과 협력해 '전북 미식 연계 한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북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교육과 조리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식재료와 미식 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협력을



통해 전북 미식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장정철 기자



KT 위즈, 20일 익산서 퓨처스리그 홈 개막

익산야구장에서 2026 퓨처스리그 'KT 위즈 홈 개막전'이 열리며 본격적인 야구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익산시와 KT 위즈 야구단은 오는 20일 열리는 익산 홈 개막전에서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막전 행사로 경기 시작에 앞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선수단 팬 사인회를 열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지난해 '퓨처스리그 챔피언 우승'을 기념해 경기 입장객 선착순 200명에

게 유니폼을 증정하고, 경기 시작 전 우승 세리머니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는 KT 위즈 치어리더팀의 흥겨운 응원과 다양한 이날 이벤트가 펼쳐져 경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KT 위즈 관계자는 "퓨처스리그 연고지인 익산에서 선수들이 성장해 지난해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역사회와 함께 활발히 소통하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아이 키우기 좋은 남원 / 삶의 기준을 높여주는 복지 남원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 남원

제9대 남원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군산시, 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제도 시행 준비 완료

군산시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제도'에 대비해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 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기존 '전북 군산' 등 지역 표시를 삭제하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번호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번호판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세로 길이를 기존보다 35mm 늘려 210mm×150mm 규격으로 확대했으며, 글자 색상도 기존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됐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번호판 제작업소를 대상으로 규격 변경에 따른 금형 확보와 제작 공정 상태를 현장 점검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해 타 시·도 전입 시 번호판 유지 방법 등 변경된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번호판 규격 확대에 따라 부착이 어려운 일부 이륜차 기종에 대한 예외 발급 매뉴얼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주요 민원 사례에 대한 대응 지침을 수립해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지역명이 표기된 번호판은 현재 사용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훼손으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만 새로운 번호판이 적용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재개 11월까지 주말·공휴일 운영

익산시가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재개하며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친환경 교통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만경강, 웅포 곰개나무에서 무료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시는 만경강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를 만경강문화관 옆 자전거문화센터로 이전했다.

만경강과 웅포 곰개나무 자전거 대여소에는 50대씩 총 100대의 자전거가 비치돼 있고, 1인용뿐만 아니라 2인용과 어린이용 자전거도 마련돼 있다. 이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료료 이용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내달 6일까지

정읍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2만 8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가는 토지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정됐으며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꼼꼼한 적정성 검증까지 모두 마쳤다.

가격 확인은 시청 공시지가상활실이나 토지 소재지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24시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변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철저히 재검증하고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 뒤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도심 전역 '꽃정원'으로

신흥공원 수변 산책로 용안생태습지 등 대규모 꽃단지 조성

익산시가 봄을 맞아 도심 곳곳을 화려한 꽃으로 수놓으며 도시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인 18일 브리핑을 통해 "꽃은 도시의 인상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마법 같은 요소"라며 "단순히 꽃을 심는 것을 넘어, 수변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전문가의 감각을 더해 익산을 사계절 꽃물결이 치는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심 속 '신흥공원', 수변 꽃바람으로 매력 더해

익산의 대표적인 도심 친수공간인 신흥공원이 올해 한 단계 더 화려해진다. 지난해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잇는 보행교가 설치되면서, 이제 시민들은 산책로를 따라 신흥저수지의 탁 트인 풍경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보행교와 연결된 수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8,000㎡ 규모의 대형 꽃 단지를 가꾼다. 봄·여름에는 튜립과 꽃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저수지의 시원한 바람에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한다.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잠시 멈춰 서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인 18일 정원 도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류형 힐링 명소'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익산 북부권 자부심 '용안생태습지', 인정받는 지방정원으로

금강의 장엄한 풍광을 품은 용안생태습지는 북부권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현재 익산시는 용안생태습지를 14ha 규모의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 64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멸종위기 식물을 들여오고 주제별 정원을 만들어, 2027년까지 자연과 정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대표 생태 관광지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거리의 표정이 바뀐다" 전문가 시선으로 만든 세련된 도시 풍경

시는 기존의 획일적인 식재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친 세련된 '혼합식재' 모델을 도입한다.

길모퉁이의 교통신은 키 낮은 꽃과 중간 높이의 나무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입체 정원'으로 꾸며 도심 속 상징적인 경관 포인트를 만든다. 김형훈 국장은 "신흥공원의 수변 산책로와 용안생태습지의 금강 물결이 꽃과 만나면 익산은 그 어디보다 아름다운 정원 도시가 될 것"이라며 "꽃으로 피어난 활력이 시민의 삶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익산시>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오는 28일부터 '시티투어버스' 운영

토·일 코스별 1회 운행 시간여행마을 등 관광

군산시는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군산시티투어버스'를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

군산시티투어버스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군산의 대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군산군도와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시간여행마을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군산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일 코스 별로 1일 1회 운행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설명해준다. 코스는 총 3개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군산역 출발 코스 △근대역사 박물관 출발 코스 △익산역 출발 코스이다.

주요 방문지는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 등 아름답고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다. 이용요금은 5,000원으로 초·중·고등

학생, 경로자, 장애인, 군인, 유공자, 도내 거주 다자녀 가정은 50% 할인되며,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20% 할인된다.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관광진흥과 김도현 과장은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이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보다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8세대 첫발

오는 12월까지 예비 귀농인 실전 영농 경험

정읍시가 예비 귀농인들이 주거 부담 없이 10개월간 실전 영농을 경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7일 입교식을 열고 부푼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디딘 8세대의 입주자를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이 시설은 귀농을 간절히 희망하지만 당장의 거주지 마련이나 농사 경험 부족으로 막막

함을 느끼는 타지역 도시민들을 위해 조성한 맞춤형 실습 공간이다. 입교생들은 오는 12월까지 농장 내에 마련된 주택에 머물며, 개인 텃밭과 공동 실습장에서 작물 재배 기술을 몸소 익히게 된다. 나아가 산배 농가 방문과 정읍시 곳곳을 탐색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촌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준비한다.

특히 시는 전체 수용 규모인 10세대 가운데 이번엔 입주를 마친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세대에 대해 현재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 외의 지

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세대는 즉시 농장에 입교해 올 연말까지 실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은 풍부한 농업 자원과 따뜻한 인심을 두루 갖춘 귀농의 최적지"라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서 보내는 10개월의 시간이 예비 귀농인들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고 정읍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농사철 가족분노 불법 살포 뿌리 뽑는다

미부속 퇴·액비 살포 내달까지 집중 단속

익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에 가족분노 퇴비를 마구잡이로 뿌려 악취를 풍기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인 18일 브리핑을 통해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부속 퇴비 약취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법 살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퇴·액비'란 가족의 배설물을 섞어서 만든 거름을 말한다. 이를 농사에 쓰려면 반드시 충분히 썩히는 과정인 '부숙

을 거쳐야 한다. 잘 썩지 않은 퇴비를 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시는 살포 후 거름을 방치해 민원을 일으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거름을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거쳐야 하며,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지 않는 날이나 이웃들이 활동하기 적은 평일을 택해 뿌리는 '이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형훈 국장은 "가족분노를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잘못 버려지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독이 된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노미경 여행작가신규홍보대사위촉

지역 매력 알리는 가교 역할

정읍시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활약 중인 정읍 출신 유명 여행작가 노미경 씨를 새로운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18일 오전 시의회관 구절초회의실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미경 작가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위촉식에서는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와 함께 진행돼 노 작가의 폭넓은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노 작가의 홍보대사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 17일까지 총 2년이며, 앞으로 정읍의 숨은 명소와 다채로운 매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읍이 고향인 노미경 작가는 케

이비에스(KBS) '아침마당'과 엠비시(MBC) '파워매거진'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지난 2017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이듬해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과 볼리비아 간 여행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공로 표창을 받는 등 국제적인 감각과 선한 영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넓은 식견을 쌓아온 노미경 작가님을 고향 정읍의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매우 뜻깊고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감각과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심분 발휘해 정읍의 숨겨진 매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 전도사가 돼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마무리

7월 결정·고시 예정

군산시는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월명동 일대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착수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오는 2026년 7월 최종 결정 및 고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월명동 일원 327,456㎡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보존을 넘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주민 실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17년 월명동 일원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근대건축자산 보호를 위해 월명동 일부 방화지구를 해제했으며, 2025년 7

월에는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계획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물의 간폐율, 용적률, 용도에 관한 계획 △근대 건축물 수선 지원 기준 및 인센티브 등이 담겨 있다.

군산시는 오는 7월 관리계획의 최종 결정·고시를 통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월명동 일대는 근대역사문화 자산이 현대적 삶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찾아가는 상담소' 일자리 문턱 낮춰

익산시가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쉽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진행한

다. 익산시는 오는 20일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을 시작으로 매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1: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취업지원 서비스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전문 상담사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순회 방문해 구직 상담과 구직 등록을 지원한다.

특히 구직자 맞춤형 취업 상담을 비롯해 지역 구인기업의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현장 중심 일자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산시 지원 가능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61명 증가한 총 2만283명이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층(60~64세)에게는 추가 1만 원이 지원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97.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도 이용률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영호 문화예술과장은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사진=군산시>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시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남원 귀석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선정

농식품부 공모 선정 2곳 포함 65억 투입 농업용수 기반 구축 하루 5900m³ 지하수 공급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지하수 함양사업' 공모에 남원 귀석지구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수 함양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물 부족이 심각한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비 지원 신규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전북 남원 귀석지구를 포함한 2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하도리·상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65억원(국비 46억원, 지방비 19억원)을 투입해 지하수 기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간 추진되며, 지하수 취수정 개발과 용수·배수관로 설치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귀석지구는 시설하우스 649동, 93농가가 밀집된 62.3ha 규모의 시설농업단지다. 그동안 농업용수와 수막 난방용 지하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루 5,900m³ 규모의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겨울철 지하수를 활용한 수막재배로 난방비를 약 95% 절감하고 탄소배출량도 약 99%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사계절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기반으로 논·밭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진=전북도>

공모 선정은 전북 농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나아가는 계기"라며, "지하수 함양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비 절감과 탄소저감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 자기주도 봉사공모 대거 선정

도청청년 봉사동아리 공모 4개 기관 참여 5곳 선정 쾌거

완주군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전북특별자치도청청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에서 대거 선정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봉사 활동을 기획·실행하며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마련했다. 도내 총 14개소의 동아리가 선정된 가운데 완주군은 무려 4개 기관에서 5개

동아리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도내 시·군 중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선정된 기관과 동아리는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의 '모두의 이용을 기본으로',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의 '스마트 안전지킴이 봉사단',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의 '행·세·꿈'을 비롯해 완주군이서청소년문화의집의 '리본'과 '환경이 갑이다' 등 총 5개 사업이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청소년주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고운삼봉도서관 투시도

<사진=완주군>

완주군 고운삼봉도서관 5월 임시 개관

120억 투입 복합문화공간 삼봉신도시 문화거점 기대

완주군 삼봉신도시의 지식문화 랜드마크가 될 고운삼봉도서관이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운영 시스템 점검 등 막바지 개관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고운삼봉도서관은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69m² 규모로 조성했으며, 올해 1월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도서관은 독서와 육아, 행정 기능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1층에는 삼봉민원센터와 커뮤니티 공간, 공부방을 배치해 주민 편의를 높였으며 2층은 어린이자료실과 공동

육아놀이터를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3층은 일반자료실과 청소년존, 다목적강당, 문화강좌실을 갖췄다. 현재 완주군은 가구 배치와 개관 도서 구입, 운영 비용 마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오는 5월 임시 개관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한 후 7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삼봉지구는 현재 4,419세대, 9,3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봉유치원과 삼례동초등학교가 운영 중이다. 아울러 2028년 삼봉중학교(가칭) 개교 예정으로 고운삼봉도서관은 향후 지역 주민의 교육과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 안과 검진

60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 연계

순창군은 오는 4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둔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眼)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4월 3일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650-5245)으로 신청하거나 각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검진은 노인 안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추진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검진에는 안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8명의 검진팀이 참여해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을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눈 질환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인공눈물과 안약을 처방하고 돋보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65세 이상이면서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은 순창군 조례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개인 수술비와 관련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공인중개사 명찰 배부...투명 거래 강화

무자극 불법 중개 피해 예방

남원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등 54명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한다. 이번 명찰 배부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개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부된 명찰에는 중개업소의 명칭,

공인중개사의 사진, 성명과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중개행위가 가능한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만 패용할 수 있다. 명찰 패용이 정차되면 시민들은 현장에서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명찰 상시 패용을 적극 권장하고, 향후 지도·점검 시 패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중동발 경제 불안 긴급 대응 TF 가동

완주사랑상품권 3% 캐시백 추진 에너지 가격·불공정 거래 점검

완주군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공급 불안에 대응하고자 18일 오전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어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희태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민생 물가, 기업 지원, 에너지 등 분야별 실무팀으로 구성된 비상경제 대응 TF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완주사랑상품권 3% 캐시백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별보조금과 카드 수수료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과 신규 지정 확대도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297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운용하고 '기업경영여로해소단'을 통해 기업별 애로 사항을 수시로 살핀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도록 돕는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류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한 합동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과 현장 관리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민생 안정과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공무원 진화대 산불 진화 대응 역량 강화

대형 산불 가정 실전형 훈련 지휘체계·초동 대응력 점검

순창군은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18일 참치면 용전리 일원에서 공무원 진화대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4월 구성된 공무원 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진화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00명이 2개 소 10개 팀으로 편성된 조직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지휘 훈련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군은 공무원 진화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복과 안전장비, 등짐펌프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며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현장 지휘 체계 확립, 산불통합지휘본부 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순창군 공무원 진화대를 비롯해 순창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창경



<사진=순창군>

찰서, 순창군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산불 발생 신고 접수와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산림공원과 직원과 산림재난대응단의 초동 진화, 공무원 진화대 투입,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등 단계별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공무원 진화대와 산림재난대응단, 산림공원과 직원, 소방·경찰 등 180여 명의 인력과 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가 동원돼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됐다. 한편 순창군은 본훈련에 앞서 지난 17일 선행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 점검과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현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대응 조직"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무원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춘향제 다회용기 도입 '지속가능 친환경 축제'

먹거리 부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드론제전 등 타 축제 확대 적용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관하루원 및 요천면 일원에서 열리는 '제96회 춘향제'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먹거리 부스 등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다회용기(그릇, 접시 등) 사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축제 기간 중 먹거리 부스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방문객은 식사 후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전용 반납함에 용기를 반납하면 된다. 수거된 용기는 전문 세척 업체로 보내져 위생적인 세척·살균 과정을 거친 뒤 다시 현장에 공급된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축제장 내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장 주요 지점에 다회용기 반납함을 배치하고 전담 운영 인력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특히 야간용 조명과 LED 간판, 안내 배너 등을 활용해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방

문객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기 반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춘향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개최될 흥부제와 남원국제드론제전에도 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제부터 드론제전까지 모든 행사를 성공적인 친환경 축제로 치러내 남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실용·인문 아우르는 평생교육 특강 '춤학습' 운영

남원시는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한 '2026년 남원시 수시특강 춤추학습 시즌1'을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수강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남원시 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춤추학습 시즌1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배움을 지원하는 '일상체육 평생교육'과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유반학 평생교육'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생활밀착형 실용 강좌와 인문·사유형 강좌를 균형 있게 구성해 시민들이 취향과 관심에 따라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시즌에는 총 10과정, 41회차의 강좌가 마련된다. 일상체육 평생교육에는 △'우리집은 홈스튜디오', △'감성 홈카페 디저트 클래스', △'사랑을 담은 꽃바구니', △'제2외국어 도전! 한국수어 첫걸음', △'시니어 활력충전 필라테스', △'아기와 나에게 집중하는 인산부 필라테스'가 편성됐으며, 사유반학 평생교육에는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SNS실전편)', △'고전, 삶을 묻다(독서토론)', △'인도 신화, 낯설고도 익숙한 세계', △'커피 한 잔의 인문학: 좋은 커피란?'이 포함됐다. 수강료는 1회당 1,000원이며, 프로그램별 횟수에 따라 일괄 납부한다. 또한 증빙서류 제출 시 1개 과정에 한해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사회연대경제기금' 민간 조성 1.5억 규모 출범

완주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1.5억원 규모의 민간기금인 '완주사회연대경제기금'(이하 완주기금)이 출범한다. 민간의 힘으로 사회연대경제기금을 출범시킨 것은 군단위 지역에서는 최초이다. 사회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박용범, 이하 완사넷)는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밴드(이사장 이정은, 이하 밴드)는 지난 17일 기금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완주기금은 완주군의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조성된 자조기금이다. 완사넷이 조성한 기금 1/3에 밴드가 2/3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완사넷의 조합사들은 1개소 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의 전문적 운용은 밴드에서, 심의는 완사넷에서 맡게 된다. 완주기금은 재무상태와 함께 지역사회의 신뢰와 평가,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박용범 완사넷 이사장은 "완주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의 15년간 축적된 역량이 있어 자율적 민간기금이라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는 행정과 기업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으로 기금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2026 개별공시지가 열람 내달 6일까지 의견 접수

순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8일부터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진행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총 12만 7,4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군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6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인을 대상으로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전문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공시해 확정하게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무주 설천면, '찾아가는 창구' 운영

무주군 설천면 행정복지센터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협업해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기곡경로당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상담창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돌봄' 인식을 개선하고, '돌봄' 욕구를 조기에 발굴해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창구에는 지역 어르신 20여 명이 참여해 △돌봄 인식 개선 교육, △돌봄 종합 상담, △돌봄 복지정보 안내, △건강 기초 검사 등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나이 들고 시골에 혼자 있으니까 식사를 챙기거나 청소, 병원에 가는 일까지 혼자서 하기 버거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며 "그동안은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외면해 왔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안부 확인부터 가사 지원, 사회 활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돌봄이 노인들한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 장계면지사협, 복지사업 확대 등 논의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장호·임재성)는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장호 장계면장, 임재성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달에 추진된 '설 명절 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활동 결과 등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 추진될 △행복나눔 제빵봉사 △아동 신체활동 증진사업 △효도관광 나들이 행사 등 특화사업 계획을 논의했으며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행정 협조사항을 점검하며 보다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협의체는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해안 일대 효도관광 나들이를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들이 대상자 발굴부터 행사 준비까지 적극 참여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홍삼, 유럽 30만불 수출 계약 성사

사)진안군친환경홍삼합방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기업 (썬)이사의 유럽 해외법인 Ciao Asia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총 30만 달러(약 4억5천만 원) 규모의 진안홍삼 브랜드 제품 수출 계약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은 2024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비즈니스대회에서 전춘성 진안군수와 사업단 관계자들이 (썬)이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한 진안홍삼 수출 방안 업무 추진 이후, 이탈리아 파도바 K-Shop 매장 내 진안홍삼 홍보관 입점(2025년 12월), 진안군과 오스트리아 수입업체와 수출방안 논의(2026년 2월)를 거쳐 본격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진안군과 사업단이 노력한 결과이다.

사업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진안관내 군수품질인증제품 및 진안홍삼 연구소 기술이전 제품, 홍삼 명인 제품을 향후 3년간 매년 10만 달러(약 1억5천만 원)씩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첫 수출은 2026년 2분기 선적을 목표로 세부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이번 수출 계약은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진안홍삼 홍보관을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판로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형 기본소득' 드디어 풀렸다!

3월 18일~20일 지급 시작 1인당 반기별 40만원 연간 80만원 지급

무주군이 18일부터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반기별 40만 원, 연간 총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무주사랑상품권 모바일형(자동 충전)'과 '카드형'으로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집중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급 대상자의 95%(21,725명)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상반기에만 총 86억 9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 주민(66세, 무주읍)은 "요즘 기름 값도 오르고 물가도 불안한데, 때맞춰 기본소득이 나와 한시름 났다"라며 "무주형 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지역에도 활기가 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형 기본소득(무주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3월 20일부터 9월 이내(6.18.이후 자동 소멸)로, 무주군 6개 읍면 내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통시장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노창환 부군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통해 2028년 확대 시행

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을 대비하고, 무주형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실천할 수 있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민 생활의 기반을 보장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쿨벨리페스티벌 7월 17일~19일 개최

축제추진위원회, 정기총회서 축제 일정 등 확정

장수군의 여름 축제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이 오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휴양지인 장수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열린다. 장수쿨벨리페스티벌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정택)는 군 소통행정복합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에는 임정택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축제 운영 결과를 보고했으며 올해 축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 예산 운영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더 발



장수군의 여름 축제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이 오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휴양지인 장수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열린다 <사진=장수군>

진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더위를 식혀줄 장수만의 청정 자연과 계곡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임정택 위원장은 "올해로 4회차를 맞

게 된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이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유류 가격 급등에 관내 주유소 긴급 점검

유가 급등에 따른 범 위반행위 여부 집중 점검

임실군이 최근 유류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유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말 대비 3월 현재 관내 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유(20%)와 등유(21.3%)의 높

은 상승률로 인해 농업인과 운수업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기업에너지팀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가동하며, 가격이 급등한 특정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부 석유 최고 가격제 상한액 준수 여부 △가격 미표기 및 허위 표기 △가짜 석유 제조·판

매 및 불법 유통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유가 급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 유통 행위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유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불법주정차 CCTV 점심 단속 유예시간 확대

주민 불편 해소·지역상권활성화

장수군은 18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던 유예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해 총 2시간 30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6대 절대 주

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완화 없이 기존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인도 등이다. 또한 장수군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점심시간 유예시간 중에도 주민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도로 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유예시간 확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유예시간 확대를 통해 점심 시간대 상가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성수산, 산림 레포츠숲 해설 운영

짚라인숲 체험 등 무료 제공 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운영된다. 임실군이 성수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 시설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림 휴양 수요 증가에 맞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모험과 체험을 즐기는 방문객을 위한 산림레포츠 시설로 '롤러코스터형 짚라인'과 '로프체널' 등 2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전한 체험 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레포츠 지도사와 보조인력 등 총 6명의 운영 요원이 상시 배치되며, 프로그램은 하루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운영된다. 자연속에서 여유와 정서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방문객을 위한 숲해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성수산의 다양한 식생을 관찰하는 생태탐방과 신비로운 이끼체험 등의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하루 2회 진행되며, 회당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돼 깊이 있는 숲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모든 체험비가 무료로 운영돼 누구나 부담 없이 성수산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에따라,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친환경 벼농사 지원 강화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사업 1ha당 55kg 상당 '왕우렁이 종패' 지원 무주군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사업을 통해 오는 5월까지 지역 내 벼 재배 농가 407곳에 우렁이 종패 7천96kg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에 따르면 이 사업은 벼 재배 농지 1ha당 55kg의 우렁이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우렁이를 직접 구입하면 이후 보조금이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은창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왕우렁이 종패 지원은 논잡초 방제에 효과적으로, 특히 친환경 벼 재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벼 재배 농가의 제조 비용과 병해충 방제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장려해 '반딧불 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봄철 조림사업 본격 추진

탄소중립·기후위기대응 실현 133ha에 나무 38만본 식재 고려하여 산림경영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관 조성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과 산물 발생 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조림지의 활착률을 높이고 조림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풀베기 사업을 5월~7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들이 갈나무, 두릅나무 등 단기 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수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용수 보조 조림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상추 재배기술 교육 추진

반면면 농업인대상 운영 토양병해충 관리 등 현장 중심 교육 장수군은 지난 17일 상추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반면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추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반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매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반면면 상추 재배농가와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상추 재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재배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토양 관리와 병해충 관리 등 실질적인 재배기술 중심으로 구성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 영원면, 난방 위기 23가구에 '온기 나눔' 등유 지원

정읍시 영원면은 1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관내 통합사례관리 23가구를 대상으로 총 690만원 상당의 난방유(등유)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우선 선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난방 위기에 처한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등유를 전달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추위와 고통가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선숙 면장은 "면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연 기자



완주 구이면지사협, 6년째 이어온 '아이사랑 행복나눔'

완주군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펼치며 훈훈한 봄소식을 전했다.

협의체는 최근 관내 영유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이사랑 행복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21년 시작해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구이면만의 특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만 0세부터 30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있는 15가구를 대상으로 필수 유아용품인 기저귀와 물티슈를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위원들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가정을 방문해 부모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은행, 부안군에 'JB 희망의 공부방' 제225호 오픈

변산다함께돌봄센터에 오픈

부안군은 JB금융그룹 전북은행(박춘원 은행장) 'JB 희망의 공부방' 제225호가 변산다함께돌봄센터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JB 희망의 공부방 사업은 전북은행에서 2012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으로 아동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225호 내 지역아동센터 등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전북은행 부행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도

북은행 최종구 부행장, 배오석 부안지점장, 김숙현 변산다함께돌봄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사업은 전북은행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JB 희망의 공부방 지원사업으로, 전북은행은 그동안 부안군에 2016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10개소, 5200만원을 지원했다.

최종구 전북은행 부행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도



전북은행, 전경

내 지역아동센터 등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임실 관촌면,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임실군 관촌면이 지난 3월 3일부터 12일까지 4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건강 교실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감염병 예방,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지키기,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치매 예방을 위한 소근육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한 소근육 활동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EM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소치현 관촌면장은 "올바른 손 씻기와 체험 중심의 건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보다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남원춘향라이온스클럽,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기탁

바자회 수익금 통해 후원

남원춘향라이온스클럽은 18일, 남원시에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5백만 원 상당(38상자·상자당30개입)을 이웃돕기 물품으로 기부했다. 성품 기탁식은 시장실에서 이주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 5명, 남원시가족센터 2명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난 1월 24일, 남원교통초등학교 강당에서 펼쳐진 바

자회 수익금을 통해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을 후원하게 됐다.

또한, 기부한 성품은 남원시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등 지역 내 청소년 24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주현 춘향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작은 나눔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군-부안군 안전총괄과, 고향사랑 상호기부

고창군 안전총괄과와 부안군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지난 1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고창군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과 부안군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각 18명씩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서로의 지자체에 180만원씩을 기부하며 지역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고창수 안전총괄과장은 "양 지

자체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것 같아 앞으로도 양 지자체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상호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사랑 기부금은 지역 특산물·관광지 홍보, 주민 복지 사업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진봉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에 생활안전 지원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복지기동대(대장 이명찬)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독거노인 등 안전사고 취약 가정을 방문해 가스타이머 설치작업을 진행했다. 가스타이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장치로 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

어,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이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편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군산 흥남동 보물섬정육식당, '착한가게' 72호점 기입

군산시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연숙)는 18일 보물섬정육식당(대표 이복희)을 '착한가게' 72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보물섬정육식당은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으로,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계기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됐다.

이복희 대표는 "흥남동 통장회장의 홍보로 착한가게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숙 흥남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게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흥남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www.ischeese.co.kr

문앞까지 신선하게 맛있는 유혹 치즈한끼

최대20%할인·전국무료배송

임실치즈농협은 "대한민국 대표치즈인 임실치즈"를 고객님의 구매편리를 위하여 "임실치즈 꾸러미"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농협

- 1 온라인 : 홈페이지(https://www.ischeese.co.kr), QR코드
- 2 오프라인 : 전화주문(063-640-6426), FAX(063-642-0900), 장구 방문
- 3 검색경로 : 네이버, 다음, 임실치즈농협 검색

문의전화 063) **640-6426**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향로 329

〈一事一言〉



전북의 AI 피지컬 센터, 구호가 아니라 국가전략이어야 한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중국의 로봇 굴기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2월 중국중앙TV(CCTV) 춘절 특집 무대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군무와 고난도 퍼포먼스는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중국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국가 패권 산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중국은 이미 로봇산업을 인공 지능, 6G, 신에너지차, 신소재와 함께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국가 차원의 로드맵과 막대한 투자, 인력 양성,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선전·광저우·우저우·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는 연구개발, 제조, 부품, 소프트웨어, 응용서비스가 결합된 거대한 로봇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공장과 물류, 도시 인프라, 서비스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알고리즘과 제품 혁신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피지컬 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에 가깝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제조업 현장의 로봇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핵심 부품과 소재, 센서, 정밀 가공기 등 가치사슬의 기반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술 혁신으로 연결하는 실증 체계도 부족하다.

규제 완화는 더디고 인력 공급은 제한적이며 투자 역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기술을 말하지만 전략은 보이지 않고, 비전을 말하지만 실행은 따라오지 않는다. 세계가 로봇 상용화 경쟁에 뛰어들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센터를 세울 것인가'라는 행정적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추진하는 AI 피지컬 센터 조성 계획은 분명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제조현장 실증을 결합하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는 시대 흐름에 맞다.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 산업, 모빌리티, 탄소산업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 AI 피지컬 기술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농업, 식품, 물류, 돌봄, 제조 전반의 생산 방식을 바꾸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지역의 의지만으로 이 산업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AI 피지컬 센터가 단순한 지역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결국 또 하나의 간판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건물 하나 짓고 명칭 하나 붙인다고 산업을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이 사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예산과 제도, 인력, 실증 사업을 동시에 밀어 넣지 않는다면 센터는 결국 보여주기식 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략 경쟁의 시대다. 중국은 기술을 통해 생존과 성장, 그리고 패권 방어까지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선언과 구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북의 AI 피지컬 센터 추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국가가 미래 산업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센터 하나가 아니다. 국가 전략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취급하는 한, 전북의 도전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도 모두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전략 경쟁의 시대다. 중국은 기술을 통해 생존과 성장, 그리고 패권 방어까지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선언과 구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북의 AI 피지컬 센터 추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국가가 미래 산업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센터 하나가 아니다. 국가 전략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취급하는 한, 전북의 도전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도 모두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전략 경쟁의 시대다. 중국은 기술을 통해 생존과 성장, 그리고 패권 방어까지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선언과 구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북의 AI 피지컬 센터 추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국가가 미래 산업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센터 하나가 아니다. 국가 전략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취급하는 한, 전북의 도전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도 모두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전략 경쟁의 시대다. 중국은 기술을 통해 생존과 성장, 그리고 패권 방어까지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선언과 구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북의 AI 피지컬 센터 추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국가가 미래 산업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센터 하나가 아니다. 국가 전략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취급하는 한, 전북의 도전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도 모두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사설

전북형 혁신조달, 스타트업 판로 '하이패스' 되길

전북자치도와 조달청이 손을 맞잡고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넓히는 실험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스카우터' 제도를 도입해 민간 전문가의 안목으로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공공구매로 직결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실적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애를 먹던 스타트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성장 사다리'를 놓아주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은 까다로운 절차와 실적 중심 평가로 인해 신생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벽'으로 인식돼 왔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납품 이력이 없으면 진입이 막히고 이는 다시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전문가 현장에서 유망 기술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공 인프라를 통해 성능을 검증한 뒤, 조달청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기존의 경직된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는 시도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해 온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과의 연계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장치다. 도청과 의료원 등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개방해 제품의 성능과 현장 적합성을 입증하고 이를 곧바로 조달시장으로 연결하는 '하이패스' 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1:10:100 프로젝트'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유니콘 기업과 상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 진

입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필수적이다. 공공조달 시장은 이러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 중 하나다. 이미 일부 기업들이 공공실증을 마친 만큼 이들이 전국 단위 판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총출력 후속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분명하다. 우선 지역 스카우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이나 형식적 추천으로 흐름 경우 제도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히 혁신제품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와 책임 완화 장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모델이 전북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와 지원도 요구된다. 지역에서 검증된 혁신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중앙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전북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 창업·벤처 생태계의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다. '기술은 있지만 시장이 없다'는 한계를 넘어 '기술이 곧 시장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새로운 길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때,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지원과 혁신조달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순창 남계리 석상승
(국가민속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민간신앙
-지정일 - 1979년 1월 26일
-소재지 - 순창읍 남계리 966-12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광2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강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88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유통망 및 인터넷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비 / 이동순

겨우내 햇볕 한 모금 들지 않던 뒤결 추녀 밑 마늘 광 위으로 봄비는 나리어 얼굴에	까만 먼지 쓰고 눈감고 누워 세월 모르고 살아 온 저 잔설을 일깨운다 잔설은 투덜거리며 일어나	때문은 이불 꺼져 옆구리에 끼더니 슬쩍 어디론가 사라진다 잔설이 떠나고 없는 추녀 밑 깨진 기왓장 틈으로 종일 빗물이 스민다
--	--	---

시인 약력 : 1950년 경북 김천 출생. 경북대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마왕의 잠'이 당선돼 등단했다. 1989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됐다. 총북대, 영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시집으로 '개뿔', '물', '노래', '지금 그리운 사람은, 철조망 조국, 그 바보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간다' 등이 있다. 2003년 민족서사시 흥벌도(전5부작10권)를 발간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공고인은 망 이정현 [720216-1531019, 2025. 10. 21. 사망, 최후주소지: 전주시 완산구 중산6길 7-8, 301호(중화산동2가)]의 상속한정승인자로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본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6년25호 상속한정승인
- 공고인: 망 이정현의 한정상속인 이영실, 이승은
- 한정승인심판결정일: 2026년 3월 5일
- 공고기간: 2026년 3월 19일~ 2026년 5월 18일
- 연락처: 1.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86, 901호(우아동2가) 한정상속인 이영실
2. 전주시 덕진구 솔내9길 7, 101동 804호(송천동1가, 송천우림아파트) 한정상속인 이승은

2026. 3. 19.

공고인 (한정상속인) : 이영실, 이승은

전북의 오늘을 기록하다...

JBT 전북타임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진북동)5층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정읍시, 외곽 자연경관 중심에서 도심 연계 체류형 관광지로 개편

■ 전 세대 아우르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정읍시는 기존에 보유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현대적인 관광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내장산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용산호 일대에 수변 데크와 포토존 등 도망 시설을 정비해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장금이 파크'를 개관해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특히 내장산문화광장 일대는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 '기적의 놀이터', '천사하이로드', '임산물체험단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 인프라도 함께 확충했다.

이러한 물리적 기반 확충은 체류형 프로그램의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운영된 '웰니스 페스타'와 '트레일러닝 대회'는 스포츠와 휴식을 결합한 기획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올해 2월 초에는 동학농민혁명 등 정읍의 핵심 국가유산과 역사 자원을 디지털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1894 달하루'를 개관했다. 이는 정읍의 역사적 서사를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함으로써 단순 관람을 넘어선 체험형 관광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 관광의 저변을 다각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 외곽에서 도심으로... '도심 수변관광'과 '야간경관'

자연·역사 자원의 확충이라는 성과를 토대로, 현재 정읍시가 추진 중인 정책의 핵심은 산과 호수 등 외곽에 머물던 관광객의 동선을 정읍 시내 중심부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읍천과 정읍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 수변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물테마시설 조성, 야간경관 개선,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이 정읍에 체류하는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고 이들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도심 상권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지역 내 소비를 유발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읍천에는 길이 61m, 높이 5.3m 규모의 대형 벽천분수가 오는 7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이 시설은 음악과 LED 조명이 결합된 수경 시스템을 도입해 주간과 야간의 공간 활용도를 차별화했다.

기존에 설치된 미로분수는 정읍의 대표적인 여름 행사로 자리 잡은 '불빛축제'와 연계해 낮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공간으로, 밤에는 야간 관광명소로 기능하도록 설계했다.

교량 야간경관 조성 사업 역시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정주교, 연지교, 초산교 등 정읍천을 가로지르는 주요 교량에 각기 다른 특색을 반영한 조명 디자인을 적용한다. 이는 단순한 조명 개선 사업이 아니라, 정읍천 전 구간을 하나의 시각적 관광 벨트로 묶어내고 정읍의 야간 도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공간 기획에 가깝다.

■ 사계절 치유관광 모델 및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동선의 도심 확장과 함께 체류형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기반 조성 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내장호 일원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0억원 규모의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치유센터와, 아트힐링정원, 물빛쉼길 등을 통해 자연환경과 예술, 휴식 프로그램을 결합한 정읍형 체류 모델을 구축한다. 이는 특정 시기(가을 단풍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계절적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 년 내내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또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읍시문화공원, 국민여가캠핑장,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주요 거점 3개소에 무장애(Barrier-Free) 인프라를 확충한다.

휠체어와 유모차의 이동을 제한하는 보행로의 물리적 단차를 제거하고 전용 편의시설을 정비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장애인 등 관광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포괄적인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정읍의 관광 수요층으로 제도화하겠다는 행정적 의지다.

■ 정읍 관광, 점에서 선으로... 지역경제 핵심 산업으로 도약

정읍시 관광정책의 본질은 '점' 단위의 관광지 개발에서 벗어나 산과 호수, 도심, 치유, 무장애를 하나의 연속적인 '선'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일회성 방문형 관광에서 숙박과 소비를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주간 중심의 관람에서 야간경관과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이 정읍의 지역경제 지표와 직결되는 확실한 산업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정읍 관광의 지형도는 자연과 역사 중심의 외곽에서 도심 상권의 중심부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정읍시는 단순히 갈 곳을 하나 더 늘리는 일차원적인 행정을 넘어,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관광-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의 관광정책이 뚜렷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내장산 등 외곽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방문형 관광 구조에서 탈피해 도심과 치유, 무장애(Barrier-Free)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도시 전체를 '체류형 관광 구조'로 재편하는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이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재설계하고 이를 지역 상권의 소비로 직결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계획의 일환이다. 관광 산업을 개별적인 단기 사업이 아닌,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산업 축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현 정읍시 관광정책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분석된다. (편집자 주)



외곽 관광지에서 도심 체류권으로 확장... 체류형 전략 본격 가동
치유·열린관광 기반 확대... 관광을 도시 경쟁력의 축으로



PAPER COREN

군산제일중·고

롯데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1차

철길공원

공동주택 부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디오션시티 터삼 1차

디오션시티 터삼 2차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2차

군산제일중·고

군산시형(0.7m)

2차(0.7m)

군산의 미래가 도는
기획의 2차

디오션시티 퍼스트

6,000여세대의 메이저 브랜드 주거타운과
전북 유일의 롯데몰 등이 어우러진 디오션시티!
철길공원과 대규모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펼쳐진 디오션시티!
새로운 명품복합도시로의 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문화·쇼핑 및 주거 등 명품복합도시

디오션시티

QR code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 또는 이미지컷으로 관계기관인 허가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